

독일의 도시 외부 공간 발달에 관한 연구¹⁾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鄭 讚 容

하노버 공대 조경 및 환경개발학과, 외부공간개발 및 계획관련 사회학 연구소 박사과정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rban Openspace in German Cities

-until just after the Second World War-

Jung, Chan-yong

Institute of Open Space Development and Sociology related to Planni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Hannover Univ.
(Institut für Freiraumentwicklung und Planungsbezogene Soziologie,
Fachbereich Landschaftsarchitektur und Umweltentwicklung, Universität Hannover)

SUMMARY

The existing urban open space system of the German cities has an excellent frame, which is a result of the long history of its developing. The beginning time of that goes back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s private gardens of feudal lords and the nobility became more and more public and public open space planned was appearing. Through the change from the feudal age to the civil society, the people's values on the urban openspace were growing, so that it had more social meaning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environment of cities was getting miserable, what was the important cause of the birth of ideas and concepts of the urban open space type and its system.

The following concepts are they, which have influenced modern open space concepts of the cities in Germany decisively: 'Garden Cities', 'Neighborhood', 'The Model of Möhring, Eberstadt and Petersen', 'The Model of Langen', 'The Classified City', 'The Classified and Loosened City' etc.

1) 본 논문은 필자가 1989년 취득한 Diplom 학위 논문(제목: Polititen, Strategien und Instrumente zur Erhaltung von Freiraumen im Ruhrgebiet)의 제1부를 번역 및 요약한 것임.

I. 序 言

독일의 도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전혀 손색 없는 훌륭한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에는 거의 예외없이 넓은 보행자 전용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잘 정비된 가로에는 가로수가 충분히 식재되어 있다. 도심의 주택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가가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녹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도처에 散在해 있는 소공원, 대공원들과 울창한 숲은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중요한 慰樂 및 휴식의 공간이다.

독일의 도시가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외부 공간을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論旨가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서 외부 공간 발달의 역사적 발자취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일인들의 도시 외부 공간의 유지 및 관리, 이용 형태 및 외부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 등등이 良質의 외부 공간의 존재를 가능케하는 根幹이며, 외부 공간의 발달사를 통해서 이것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II. '외부 공간'의 定義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외부 공간'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open space에 상응하는 독일어의 ~Freiraum²⁾을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에 대하여 독일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 테마에 따라 相異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용어의 정의를 再 訂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독일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Freiraum에 대한 정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공간들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용도나 기능으로부터 도출한 것들이다.

1) 행위 중심적 정의

Hülbusch (1981)의 정의, "사람들의 여유 공간", 또는 Wiese von Ofen (1984)의 정의, "자발

적 공간" 등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의 관점은, 이 공간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나, 용도가 확정된 공간과 명백히 반대되는 것으로 파악하며, 私的인 공간이 아니라, 公共 공간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 정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 가능성에 있다.

그러나, 독일 학계에서는 이들을 기타 다른 정의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자연 자원이자 삶의 전제"라는 정의와 함께 대체로 비 현실적 관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Ahn/Straßner 1986, 11).

2) 용도 중심적 정의

Nordrhein-Westfalen 주가 1984년에 발행한 ~Freiraum'보고서 (Freiraumbericht)에 의하면, "Freiraum 개념으로 집약되는 토지이용으로서, 居住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기타 모든 용도를 가리킨다 (농지, 삼림, 水域, 습지, 황무지)" (p. 15) (이 보고서에 의하면, 또한 거주 목적으로 쓰이는 공간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정원, 마당이나 건물에 속한 땅, 교통공간, 공장 대지, 항공 및 궤도 교통 공간, 체육이나 녹지 시설, 방어 공간, 기타 용도로 쓰이는 공간). 이 정의대로라면, 도시의 상당한 부분의 외부 공간들이 더 이상 Freiraum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된다.

Cerwenka와 Matthes (1982)가 정의한 Freiraum도 이와 유사하다. 그들에 의하면, 농경지역, 삼림지역, 수자원 경계 지역, 위락 지역, 자연 보호 지역, 경관 보호 지역, 경관 관리 및 개발 지역, 지상 지하자원 개발 지역, 퇴적지 등이 Freiraum에 속하게 된다.

이 정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Freiraum의 다 기능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Bloch(1983)이나 Wegener(1983)가 주장한대로, 실제 생활에서 Freiraum은 어떤 용도로서의 집약적 이용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의 다 기능성에 의해 가치를 얻게 되며,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와 다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類의 정의들도 행위 중심적 정의들과 마찬가지로 비 실제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2) Frei는 '비어 있는' 또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으로 영어의 free와 거의 같은 개념이며, Raum은 '공간', '방', '장소', '지역', 또는 '여유', '틈' 등의 의미로 쓰인다.

3) 총체적 정의

앞의 두가지 정의를 묶어서 총체적으로 Freiraum 을 정의한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 “Freiraum은 비어 있지 않은 공간, 즉, 건물이 서 있는 공간의 반대 입장에 있는 공간이다. Freiraum 의 기능적 내용은 위락 기능에서부터 생태적 기능을 거쳐, 교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Freiraum을 본다면, 위락 기능이 우선한다”(ILS Dortmund 1975, 77). 이와 비슷한 정의를 Krahl(1976)은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 “Freiraum에 속하는 공간은, 한 거주 단위 경계 내의 건축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녹지일 필요는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용 방식과 밀도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국민의 위락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또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보행이 가능하다. 그 공간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다양한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그들은 도시 内外의 경관을 특징짓고, 형성하며 따라서 공간 분할에 기여한다”(p. 45-46).

본 논문에서는 이 총체적 정의를 따라, Freiraum 을 ‘외부 공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로 한다. 1985년에 독일 건설부의 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에서 Läscher-Bauer가 내린 Freiraum에 대한 정의는, 이 말을 ‘외부 공간’으로 代替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다 : “도시 內에 있는 Freiraum(외부 공간)들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 부문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부에 있어서의 Freiraum(외부 공간)은, 대체로 건물이 서 있지 않은 공간으로, 교통, (물자) 공급, 건물 간격 유지에 우선적으로 기여하며, 부차적으로는 위락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 미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도심에 있는 주거기능 중심지역의 Freiraum(외부 공간)은 대체적으로 보다 私的인 공간이자, 주거 또는 商街지역을 보완하는 빈 공간이며, 마찬가지로 부차적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p. 19).

이 정의에서 특기할 것은, 외부 공간의 범주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 확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큰데, 왜냐하면, 협소한 개념 (예를 들면 ‘공원 녹지’)에 의해 배제되는 공간이 사실은 도시 외부 공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Läscher-Bauer

1985, 97).

Ⅲ. 도시 외부 공간의 역사적 발달 과정

지금까지 독일의 도시 공간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특별히 도시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한 연구는, 주로 개개의 외부 공간 형태, 예를 들면, 공원, 장식 광장 또는 개인정원 등의 시대적 발전상을 그 형태나 양식의 변천에 따라 기술한 정도여서, 도시 외부 공간 발달의 전체적 概觀을 파악하는데 적합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사회 발전 단계에 따른 도시 외부 공간의 발달 과정을 고찰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역사적 시점은 18세기 말로 잡는다. 왜냐하면, 이 때가 독일 도시에 있어서의 외부 공간의 公共化가 되기 시작한, 따라서 公園이나 公共 광장의 붐이였기 때문이다 (Hennebo 1970, 99).

1) 18세기말까지의 도시 외부 공간-절대 왕정 시대

독일의 도시 외부 공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당 부분이 중세시대에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당시 都城 안의 공공 공간으로서는 장터, 산책로, 교회 마당 등이 소규모로 존재하고 있었고, 성 밖의 마을 공동 축제장, 초원 등이 또한 공공 공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성 내부에서 대부분의 외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領主나 귀족들의 주거 건물에 딸린 정원, 수도원 정원, 遊園, 菜園 등등의 私的 공간이었는데 (Krysmanski 1971, 47; Richter 1981, 17), 이들이 결국 後代의 도시 외부 공간 발달의 중심이자 외부 공간 개념이나 철학의 물리적 바탕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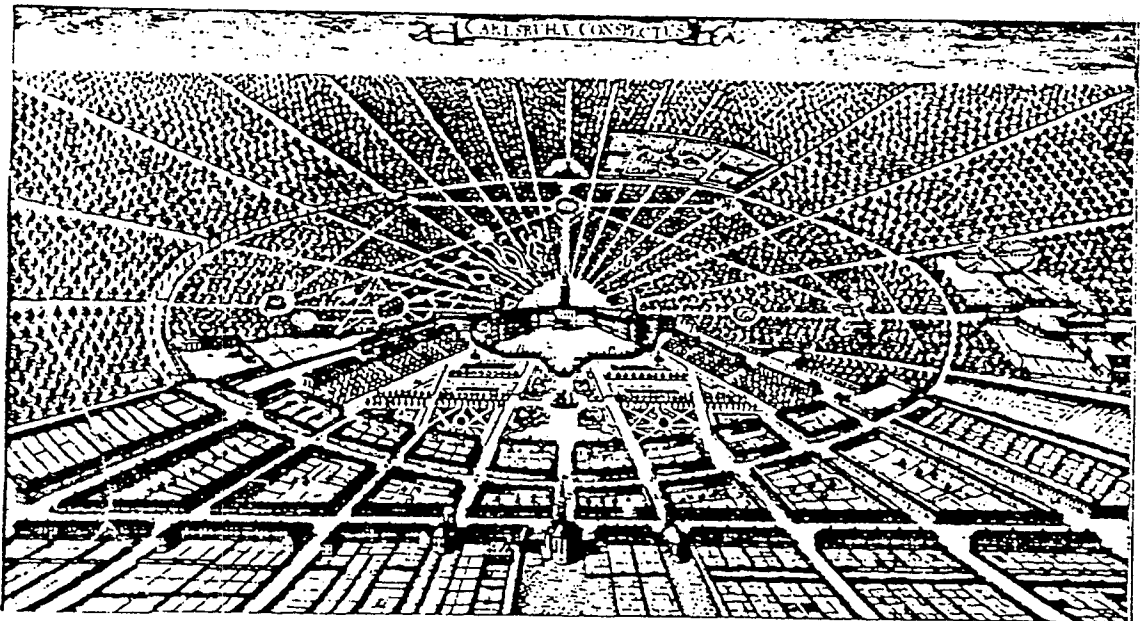
이들 私 정원들의 양식은 ‘정원 예술’(Gartenkunst)이라 불리웠던 定形式 정원이었다. 특히 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귀족들의 영지에는 대 규모의 정원들이 정형식으로 조성되어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ennebo 1979, 77). ‘정원 예술’은 단지 귀족들의 私 정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양식은 또한 도시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16세기, 17세기의 기하학적 도시 구조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림 1의 1700년대 Karlsruhe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형태로 의도했던 바에 대해서 Heuken(1968)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도시의 기하학적 형태가 가지는 힘은 매우 명백하다: 방사선 모티브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며 중앙에서 외곽으로 뻗어 나가는 줄기는 바로 영주의 빛이자 축복이다. 그러므로, 영주와 가까운 곳에 집이 있다는 것은 특권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곳은 지배자의 영광이 더 밝게 비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하층 계급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p. 175). 즉, 봉건 諸侯들은 도시의 특정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서 공간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그들의 절대 지배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Hennebo 1979, 79-80).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계몽 주의 사상의 擡頭와 함께, 이 정원들은 차츰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추세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했던 계층도 역시 대 지주나 영주였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은 역시 권력과 개인적 영달의 찬란함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

었다 (Hennebo 1979, 146-147). 또 하나의 중요한 외부 공간으로 ‘城壘 산책로’(Wallpromenade)를 들 수 있다. 18세기에 빠른 속도로 조성되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內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성內 녹지가 줄어들면서 Green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에 基因한다. 이 산책로는 거의 대부분의 성곽 도시들에 조성이 되었고, 18세기말, 19세기 초의 성벽 철거 이후에는 풍경식 環狀 공원(Ringpark)으로 발전하였으며, 몇몇 도시들의 도시內 녹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Hennebo 1979, 103).

그 밖에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귀족들이 그들의 사냥터나 별궁(사냥터 별장 또는 夏宮)들을 연결하는 가로수 길을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가, 당시 Ulrich (1779)라는 여행자가 쓴 旅行記의 일부에 나와 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 일부분은 앉아 있고, 대부분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며, 몇몇은 무리지어 서 있었다. 중앙에 있는 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에서는, 각종 음료수를 팔고 있었다.” 여기서, 이러한 길들이 이



자료: Hennebo, D. (1979) Geschichte des Stadtgrüns, Entwicklung des Stadtgrüns von der Antike bis in die Zeit des Absolutismus, Band 1, Berlin Hannover: 84

그림 1. 18세기경의 Karlsruhe시 기본도

미 많은 사람들의 산책로로 쓰였다는 것과, 당시의 도시 외부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가로수 길의 조성은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서, 영주나 봉건 귀족의 거주지가 아닌 도시에서도 발생하여, 시민들의 위락 장소로 이용되었다 (Hennebo 1979, 95-96).

2) 도시 공공 외부 공간의 붕어-시민 귀족 사회

독일의 18세기말은,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의 여러가지 부문에 걸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 중에서 도시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예로서,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한 성벽의 철거, 농민 해방 및 상업 자유 보장, 교통 수단의 근대화, 위생 의학 기술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등을 들 수 있다 (Richter 1981, 18). 농업 중심의 사회로부터 산업 사회로의 轉移, 시민 계급의 급속한 지위 浮上 등에 惹起되고, 도시들은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도시의 공공 외부 공간의 탄생 시점도, “다시 강해진 시민 계급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변화된 생산 방식과, 늘어난 인구, 도시화의 점증이 새로운 수요들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개념들이 變位를 占하게 된 때가” 된다 (Hennebo 1970, 99).

“시민적 도시화” (Ipsen 1956, 786)라 부를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하여, 도시 공간의 기존 지배자였던 봉건 영주와 귀족들은 시민에 의해 대체되고, 폐쇄형 도시는 개방적 시민 도시로 전환 된다 (Mackensen 1974, 141).

이 시기에 있어서 도시 공간 정책의 원칙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援用한 것이었고, 따라서 바야흐로 성벽이 없어지면서 생긴, 시민 복지를 위한 외부 공간 마련의 획기적 轉期를 놓치고 만다 (Krysmanski 1967, 180). 결국, 1789년 조성된 뮌헨(München)의 “영국 정원”(Englischer Garten)을 제외하면,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시민을 위한 외부 공간 시설은 소규모에 그치게 된다.

‘자연 풍경식’ 공원이 이 시기의 양식으로 등장한 것도 이러한 자유 방임적 맥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 싹이 튼 이 양식이 독일에서 꽃피기 시작한 것은 몇 십년이 지난 세기 말이 되어서다. 당시 유럽 대륙의 자연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루소(Rousseau)는 봉건 귀족들의 걸치레 위주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고, 동시에 자연을 규격화하고 환경을 정교한 예술 작품처럼 조성하는 것을 부정하였으며 (Nehring 1979, 103-104), 그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Hirschfeld(1785)는, 그때까지의 정형적이고 인위적인 요소를 비 정형적이고 자연적인 형태와 접촉시킬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 양식의 대표자가 된다. 또한 그는 시민에게 개방되어가고 있던 귀족들의 私 정원 및 공원 이용에 관해서도 언급하여, 시민들에게 조건부로 입장³⁾이 허가되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완전한 이용권을 줄 것을 주장한다 (Hennebo 1979, 155).

Hirschfeld는 또한 이 주장을 더 발전시켜서 독일의 국민 공원 개념으로 확대시킨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가 정의한 국민 공원의 기능이다. 그에 의하면, 국민 공원은 시민들이 단순히 日常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위락 행위를 하는 장소인 동시에, 그들의 도덕적인 그리고 미학적인 교육, 즉,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 공원은 “국민들에게 그들이 휴식하고 즐기면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상적인 기억을 통해 그 배움이 오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국가의 역사를 담은 그림들이 소장된 건물들과 이미 故人이 된 위인들의 초상화 기둥, 중요한 사건들을 묘사한 기념비 들은 그것들로 우아하게 치장될 광장들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Hirschfeld 1785, 70).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당시 계몽 사상가들 또는 신분 상승을 달성한 시민 계급 층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세기 全般에 걸쳐 여러 국민 공원들이 풍경식 공원 양식으로 조성되는 데, Magdeburg의 ‘국민 공원’ (1824), Mainz의 ‘도시 공원’ (1819), Köln의 ‘도시 공원’ (1826) 등이 Hirschfeld의 제안을 그대로 구현한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공원 시설들은, 그러나 그들의 목적과는 달

3) 시민 계급으로서 이 공원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했고, 통과는 하되 머무를 수는 없었다 (Hennebo, 1979).

리, 궁극에 가서는 국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 귀족 층의 상승된 신분을 과시하거나 또는 상징하는 용도로서의 도시미관 提高용으로 전락하여, 그 후의 도시 외부 공간 불평등 분배의 遠因이 된다 (Spitthöver, 1982, 95).

3) 산업적 도시화-초기 자본 주의 시대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산업 혁명이 일어난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 도시들의 성격과 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도시 전역에 걸쳐 무분별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 계층은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땅 투기로 인해 치솟은 토지 가격때문에, 거처할 곳을 구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 바로 '집단 임대 주택' (또는 임대 막사라고도 불리웠다) 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 좁고, 비 위생적인 주거를 감내해야만 했다. 최소한의 토지 이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노리는 경제 법칙의 原論에 의거한 도시 정책에 의해, 이들 주거 단지의 외부 공간 시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당시 토지 이용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 법에 의해 보장되었으며, 토지 정책 결정권을 가진 층과 대 지주들은 대부분 동일 계층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장되었다 (Spitthöver 1982, 29-3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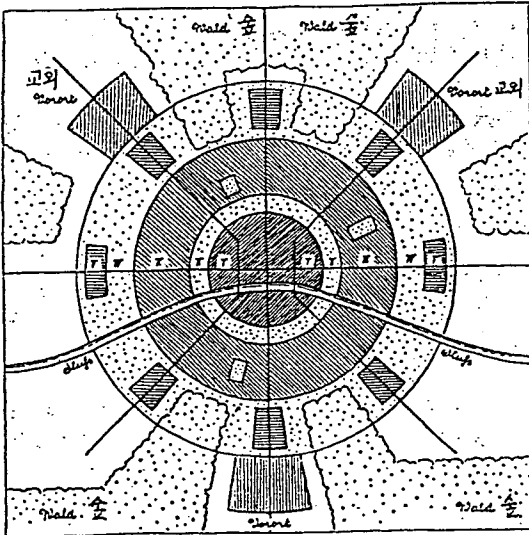
1875년 '프로이센 街路'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 공간 발전의 場이 열리고, 공공 녹지도 도시 계획의 일부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투기에 의한 지가 상승을 막지 못하여, 도시 외부 공간의 열악한 상황은 회복되지 못한다. 其 조성된 공원들은 여전히 하류 계층의 위락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고, 행위 규범까지 정해져 있어서 그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 공원들은 여전히 도시의 장식 또는 신분 상징용으로, 한편으로는, 당시 공원 內 시설물들, 예를 들면, 테니스 장, 크로켓 장, 경마 코스, 승마로 및 꽃마차로 등등이 시사하는바처럼, 당시 시민 귀족이라 불리우던 지배 계층의 사교장 또는 폭발적인 도시화 과정으로부터 그들을 위해 유보된 특권 지대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Krysmanski 1967, 180). 시민 귀족들은 공원을 주변에 정책적으로 그들의 주택가를 조성하여 도시 공

간의 불균형적 발전을 증폭시켰고, Hirschfeld가 제안한 도시 외부 공간의 사회적 과제는 철저히 도외시되었다 (Wiegand o. J., 21).

그 밖의 기타 도시 외부 공간, 美觀 광장, 城壘 산책로 등등도 이 발전 단계에서 경제적 가치에 밀려, 교통 광장, 삼각지, 순환 도로 등으로 점차 변환된다. 몇몇 놀이터가 조성되기도 하지만, 위치는 대부분 교외로 한정되었다.

이 시기에 짝이 튼 '小 정원 운동'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反 작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운동의 기원은 19세기초 사회복지적 배려로 빈민층에게 할당했던 '빈민 정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또한 산업 혁명으로 인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주로 야채를 재배했던 '노동자 정원'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offjahn 1981, 52). 이 운동의 선구자 Schreber는 문명화로 야기된 정신적 피해를 막고, 정원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치료 효과를 들어, 이것을 국민 교육 및 건강 증진 方法으로 제안한다 (Richter 1981, 122). 이 제안은 그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하고,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1864년에 교육학자 Hauschild가 Leipzig에 Schreber조합을 만듦으로써 비로소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린이 화단' (Kinderbeet)으로 시작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해 '가족 정원'으로 변용되었고, 그 후, 사회 개혁적 의도, 즉, 산업화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게 약간의 재산 소유를 제공하자는 것과 착취적 노동으로부터의 부분적 해방 (자발적 노동)이라는 의미가 附加되어, 'Schreber 운동' (Schreberbewegung)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다 (Krysmanski 1967, 185).

무분별한 도시 공간 발달에 대한 비판, 건전한 공간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때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delheid von Dohna-Poninska (1874)는 '대 도시와 주거단'이라는 저서에서, "도시공동체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모두 인간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적인 주거 환경은 도시 건설이나 확장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 조건이다. 인간적인 주거 환경이라 함은 廣義로 볼 때, 단순히 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옥외의 위락 장소나 녹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도시 시민 사회의 모든



- I. 古 도심
- II. 내부 環狀 녹지 및 산책로
- III. 교외 주거 지구
- IV. 외곽 環狀 녹지 및 농경지
- V. 공공 건물 및 분산형 주택지구

자료 : Kabel, E. (1949) *Baufreiheit und Raumordnung, die Verflechtung von Baurecht und Bauentwicklung im deutschen Städtebau*, Ravensburg : 95

〈그림2〉대 도시 그린 벨트의 기본도

계층은 모두 외부 공간에서의 휴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연은 상류층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의, 모든 연령층의 노동자 계급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p. 8). 또한, 그는 실제적인 실행 방법의 하나로서, 대도시를 둘러싸는 그린 벨트와, 도심의 외부 공간 및 산책로를 건축물로부터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2). 균형적 도시 성장과 도시의 기능적 분류를 주창한 Baumeister (1876)는 모든 도시 구역에 각각 공공 위락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밀집되어 있는 도심 부분에는 가로수보다는 광장 스타일의 시설이 더 유용하다. 이 곳에서는 식물군도 훨씬 잘 자라며, 교통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지에 식

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이야말로 진정한 평온과 교통 소음 차단,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산책하는 사람들은 정화된 공기를 누리며, 아이들은 아무런 위험없이 놀 수 있다” (p. 189).

이 주장들의 특징은, 도시 외부 공간 보호 및 시설, 그리고 녹지를 이용하여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들은 이미 외부 공간에서의 위락 행위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부 공간 분배의 사회적 의미와 도시의 건조한 인공 구조물에 대하여 가지는 외부 공간의 補償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20세기로 넘어갈 때까지 실현되지 못하지만, 후의 도시 공간 발달 개념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 여러 도시들이 대도시 급에 도달하고, 도시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19세기 말에 이르르면, ‘정원 예술’ 자체의 개혁이 일반적인 사회 개혁 물결을 타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기운은 1860년대에 영국에서, 책 장정, 미술, 건축 그리고 정원 예술 전반에 걸쳐 불기 시작하여 독일에는 1890년대에 ‘청소년 양식’ (Jugendstil) 이라는 이름으로 유입된다. 이 개혁 운동의 목적은 예술 분야의 실제 삶으로부터의 고립성을 타파하고 그것을 총체적인 예술 작품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다. 즉,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사실화 되는 것”을 추구하였다 (Posener 1964, 14). 그리하여, 그때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풍경식 양식을 複寫하던 것을 명백히 부정하고, 기존 조경가들을 완벽한 실패자로 규정한다. 이 운동은 처음부터 사회 개혁 운동 이념을 근간으로 출발하여, 그 모토로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기여하는 예술 창출을 내세운다 (Wiegand, o. J., 23).

그러나, 이들의 개혁이 결국은 미학적 관점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었고, 당시 사회 발달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終局에는 특권층들의 개인 정원 양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준 정도로 그치고 만다 (Posener 1964, 14).

이 개혁의 물결은 도시 공간 계획 분야에도 파급되어 ‘전원 도시 운동’ (Gartenstadtbewegung)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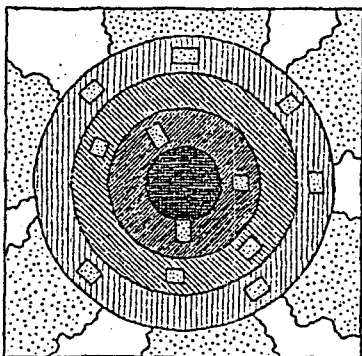
결실된다. 이 운동의 제창자 E. Howard는 1898년에 발간한 ‘Tomorrow-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⁴⁾ 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통상 생각되는 것처럼 두 가지, 즉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집약적 삶의 장점과 농촌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용해한 세번째 방식이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는 자력처럼 작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효과, 즉 국민들을 과밀한 도시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모든 행복, 풍요, 힘의 원천인 자비로운 母土의 가슴으로 돌아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移農 현상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環狀 녹지 시설과 母市와 단지 느슨한 연결만 갖는, 독립적인 위성 도시 건설을 제안하였다.

그의 이 제안은 구체적인 代案 부족으로 공지에 물려있던 개혁 주의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의 ‘전원 도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토지 소유층과 중산층이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농촌형 도시’ (Breitling 1975, 30)의 불편한 교통과 반 산업화적 성격은 별 매력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Gleichman 1963, 16). 그러나, 이 운동이 가진 사회 개혁적 특성은 그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 독일의 현대 도시 공간 계획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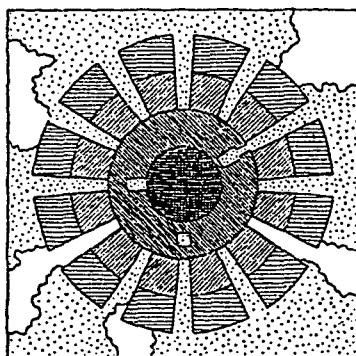
1900년으로 넘어오면서 뉴욕의 Center Park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도시 공원 형태가 독일에서 조성되기 시작한다. Center Park의 “한편으로는, 18세기 정원 예술의 모습도 표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의 肺로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정신적 피로 회복에 기여하는, 그리하여 결국은 사회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Kabel 1949, 158) 특징은 새 시대 공원의 典範으로 받아들여져서, Charles Eliot가 제창한 ‘공원 운동’을 통하여 대도시를 거대한 풍경식 공원으로 보이게 하는 녹지 체계 개념으로 발전한다. 이 미국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대 베를린 (Gro berlin)시의 상세 계획 응모전을 수상한 Möhring, Eberstadt, Petersen의 설계다. 설계 기본 개념으로서, 그들은 도심까지 켜켜이 관통하는 방사선형 녹지와, 교외 위락 지구와 자연적 공간을 산책로로 연결시켜 도시의 통풍을 원활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을 Langen은 더 발전시켜 환상 녹지와 방사선형 녹지를 조합하여, 도심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주택군을, 각각 이 녹지들로 분리된 작은 독립된 동네들로 분산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림 3), 이것들은 이후의 독일 도시 외부 공간 발전 개념의 原形이 된다 (Kabel 1949, 158-159).

4) 사회적 도시화-시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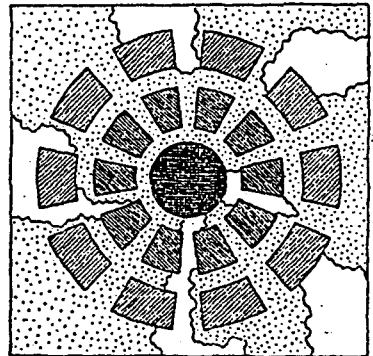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 (Wei-



a) 자유 방임적으로 발달한 도시



b) Möhring, Eberstadt, Petersen의 모델



c) Langen의 모델

자료 : Kabel, E. (1949) *Baufreiheit und Raumordnung, die Verflechtung von Baurecht Bauentwicklung im deutschen Städtebau*, Ravensburg : 159

<그림3>. Möhring, Eberstadt, Petersen 과 Langen의 모델

marer Republik)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성립되자, 도시 발전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의 관념들은 이제 분명히 후퇴하고, 새로운, 부분적으로는 이미 알려진 방법론들이 널리 인정받기 시작하여, 도시의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1차 세계 대전 후의 혁명적인 새로운 시작은 미학적 목표와 사회적 이상과의 복합체를 야기시켰다” (Albers 1957, 184). 그리하여, 경제적, 기능적 관점은 사회적 관점에 의해 대체되고, 도시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발달하여야 하며, 개인의 자유의 물질적 및 정신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장점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도시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⁵⁾ (Albers 1957, 185).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1920년대에 일어났던 ‘국민 공원 붐’ (Volksparkeboom)이다. 1920년의 11월 혁명이 끝나면서 불기 시작한 이 붐은 당시 사회 불안 요소: 대량 실업, 재향 군인들, 물자 부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협을 무마할 대책을 찾고 있었고, 여기에, 노동 집약적이고, 적은 양의 물자와 기계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고급 노동 인력을 요구하지 않는 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前述한대로, 그때까지의 불평등한 외부 공간 분포 및 이용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정치적 경제적 의미에다 사회적 의미까지 띠고 있었고, 그리하여, 1920년대全般에 걸쳐 많은 국민 공원들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動機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외부 공간과 건축물의 理性적이고, 균형적인 관계 형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Bensel 1981, 335).

이러한 축선에서, Wolf는 Möhring, Eberstadt, Petersen 그리고 Langen의 Idea를 보다 발전시킨 ‘分類된 도시’ (Die gegliederte Stadt)라는 도시공간 개념을 제창한다. 모든 건축 지역과 외부 공간 그리고 교통 시설등을 철저한 계획으로 완벽한 질서 하에 분할 정리한 이 개념은, 그러나 지나친 조형성 추구로, 도시 공간 질서의 사회적 과제를 잘못 이해했다

는 평가를 받는다 (Kabel 1949, 160).

당시 또 하나의 중요한 Idea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近隣 공동체’ (Nachbarschaft)이다. 전원 도시 운동으로부터 동기를 얻어, 미국에서 형성된 이 개념은, 독일에서는 1930년대에 사회적 관심이 개개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인간적인 공동체 형성 쪽으로 옮겨지면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 개념이 의도했던 것은, 공간적으로 좁은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여 밀접한 인간 관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익명성을 극복해보자는 것이었으며, 또한 녹지를 비롯한 외부공간과 건축물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 도시 기능의 분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Krysmanski 1967, 184).

1933년 Hitler의 제 3 제국이 등장하면서 독일 사회는 국가 사회 주의 체제로 변모하기 시작하고, 사회의 각 부문도 또 한번의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 2 차 세계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종식되면서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도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따라서 여기서도 이 시기의 도시 공간 개념 발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5) 탈 집중형 도시화-연방제에 의한 지방 분권

戰後 독일의 도시 공간 관련 부문은 상당 기간 동안 침체에 빠지게 된다. 국가 사회 체제 下에서 일어났던 중앙 집권적 계획 일변도의 풍토에 대한 반발로 反 계획 사조가 풍미했고,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는 많은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된다 (Albers 1983, 16). 그러다가, 1957년 Göderitz, Rainer, Hoffmann이 Wolf의 모델 ‘분류된 도시’와 ‘근린 공동체’ (Nachbarschaft)를 통합한 “分類되고 分散된 도시” (Die gegliederte und aufgelockerte Stadt) 개념을 발표함으로써 轉機를 맞게 된다. 이 개념의 근간은 대중 조직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인간 대중이 집단화와 분류를 통해서 조직되고 통제 가능해지듯이, 도시 공간 즉, 도시 시설 지역의 총체는, 건축적이고 입체적인 인간 삶의 그릇으로서, 오직 분류를

5) Hegemann과 같은 경우, 도시 계획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질서의 밀접한 관련을 중시하여, 이미 1913년에 자발적인 행정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분권화된 도시 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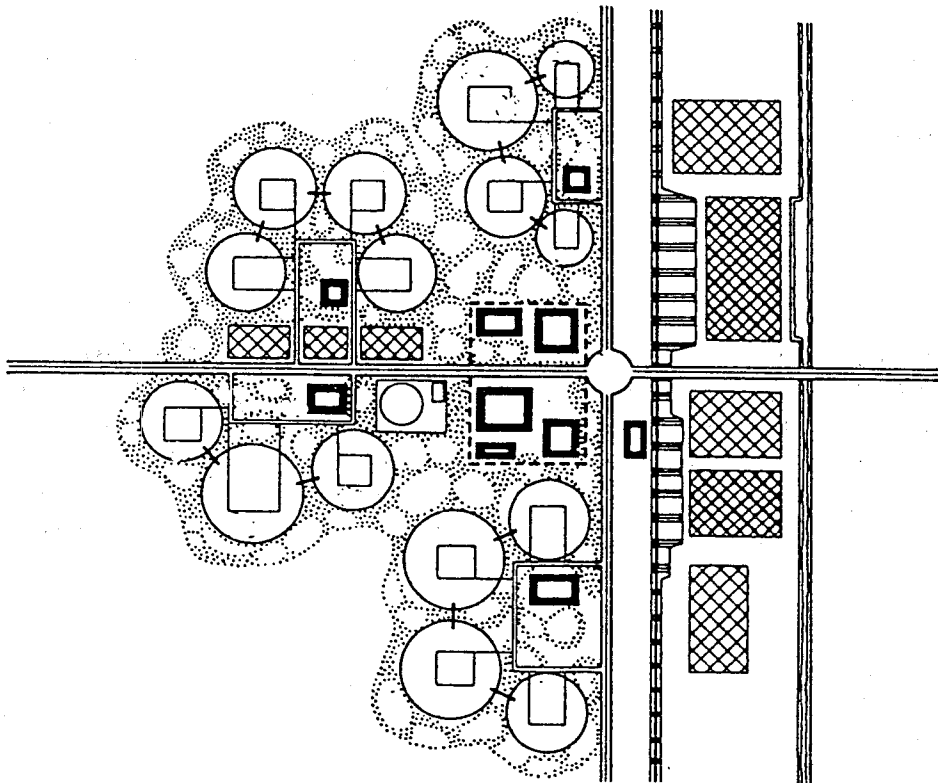
통하여 파악 가능한 단위들로 정리, 즉 조직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커서 단순한眺望이 불가능한 그런 도시 형태, 즉 대도시 시설지역의 큰 덩어리를, 스스로 완결된, 서로 서로 분리된,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 생활이 가능한,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전체에 부속된 여러 도시 구역, 도시 세포, 근린 공동체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미한다”(Göderitz, Rainer, Hoffmann 1957, 24). 그림 4는 완결된 하나의 도시 구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도식도이다 (각각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 단위 群들과,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구역 공동 시설, 그리고 이러한 구역들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망과 대형 도시 시설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개념이 도시 공간 발달의 대표적 유형을 형성하는 바탕을 이루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연방제를 통한 지방 자치가 실시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최소 지방 자치 단체에서부터 독자적인 공간 계획 수립 및 실시가 가능해졌고, 여기에 이 모델은 時宜 적절한 대안을 제공한 셈이 된 것이다. 1960년 연방 건설법이 제정되면서 이 개념은 법적으로 뒷받침을 얻게 되고, 도시 발전도 그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서, 교외에는 충분한 녹지를 보유한 여러 개의 소도시들이 발생하는 반면, 도심은 점차 분산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Siebert 1975, 50).

IV. 요약 및 결론

현재 독일 도시들의 외부 공간은 상당히 오래된 기본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중세 시대, 절대 왕정 시대의 지배층의 관심과 권력 과시 욕구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도 미쳐서, 당



자료 : Die gegliederte und aufgelockerte Stadt, 1957

〈그림4〉 Göderitz, Rainer, Hoffmann의 도시 분류 개념도

시에 이미 훌륭한 외부 공간이 계획되고 조성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시민 귀족 사회로 사회체제가 바뀌면서 이 외부 공간 시설은 여전히 일부 특권층에 의해 전용되지만, 동시에 이 공간들을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인식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민 공원'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인식에서 탄생한 것이었고, 이 개념으로부터 외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사람들의 意識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산업 혁명으로 도시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도시 외부 공간 발달도 경제적, 기능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도시 환경도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악화된다.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정원 예술 자체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외부 공간 시설들을 도시 구조 체계 속으로 이입시킨 개념들이 제안된다. 일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적 관점이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자, 이 제안들은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전원 도시 운동'으로부터 '근린 공동체'로의 발달과 '공원 운동'으로부터 Möhring, Eberstadt, Petersen의 모델, Langen의 모델을 거쳐 발달된 Wolf의 '분류된 도시' 개념이 야기되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분류되고 분산된 도시'로 결실된다.

이로써, 독일의 도시 외부 공간의 발달사는 독일 사회 구조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중세 시대의 지배 계층의 권력 상징 및 과시 용으로서의 '정원 예술'에, 시민 사회로의 전이로 '국민 공원'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 혁명으로 도시 환경이 열악해지자, 사회적 관점과 환경 개선적 관점이 다시 추가 된다. 여기에 지나친 도시 집중과 성장을 억제하는 방안, 즉 지방 분권적 개념이 더해져서 오늘날의 독일 도시 외부 공간 구조의 이론적 기본틀이 형성된 것이다.

인 용 문 헌

1. Ahn, M./Strassner, B.(1986)Planungskategorie Freiraum, Diplomarbeit, Dortmund : 11
2. Albers, G. (1957) Die geistes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Städtebaus, Der Wandel der Wertmaßstäbe im 19. und 20. Jahrhundert, In : Vogler, P./Kühn, E. (Hrsg.) Medizin und Städtebau, Band 1, München, Berlin, Wien : 184-185
3. Albers, G. (1983) Wesen und Entwicklung der Stadtplanung, In :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Hrsg.), Grundriß der Stadtplanung, Hannover : 13, 16
4. Arminius (Adelheid von Dohna-Poninska) (1874) Die Großstädte in ihrer Wohnungsnoth und die Grundlagen einer durchgreifenden Abhilfe, Leipzig : 137
5. Baumeister, R. (1876) Stadterweiterungen in technischer, baupolizeilicher und wirtschaftlicher Beziehung, Berlin : 189
6. Bensel, U. (1981) Stadt- und Grüntwicklung - ein geplanter Prozeß?, In : Andritzky, M./Spitzer, K. (Hrsg.), Grün in der Stadt, Hamburg : 335
7. Bloch, A. (1981) Ökologische Vorräte und Möglichkeiten ihrer Zusammenfassung zu multifunktionalen Instrumenten, In :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Hrsg.), Arbeitsmaterial Nr. 54, Hannover : 22
8. Breitling, P. (1975) Fragen zur Geschichte der städtischen Grünflächenpolitik, In : Veröffentlichungen der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 Städtisches Grü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and 101, Hannover : 30
9. Cerwenka, P./Matthes, U. (1982) Freiraumplanung - Darstellung funktionsfähiger regionaler Freiräume in Gebietsentwicklungsplänen, Prognos AG, Band 1, Basel : 1
10. Gleichmann, Pl (1963) Sozialwissenschaftliche Aspekte der Grünplanung, Stuttgart : 16
11. Göderitz, J./Rainer, R./Hoffmann, H. (1957) Die gegliederte und aufgelockerte

- Stadt, Tübingen
12. Hegemann, W. (1913) Der Städtebau, II. Teil, Berlin
 13. Hennebo, D. (1970) Zur Geschichte des Stadtgrüns, I. Von der Antike bis zur Zeit des Absolutismus, Berlin, Sarstedt : 99
 14. Hennebo, D. (1979) Geschichte des Stadtgrüns, Entwicklung des Stadtgrüns von der Antike bis in die Zeit des Absolutismus, Band I, Berlin, Hannover : 77-80, 95-96, 103
 15. Hennebo, D./Schmidt, E. (o. J.) Geschichte des Stadtgrüns, Entwicklung des Stadtgrüns in England von den frühen Volkswiesen bis zu den öffentlichen Parks im 19. Jahrhundert, Band III, Berlin, Hannover : 98-99
 16. Heuken, B. (1968) "Zur Soziologie barocker Stadtplanung in Süddeutschland", Zeitschrift für Ästhetik und allgemeine Kunstwissenschaft, 13(2) : 175
 17. Hirschfeld, C. C. L. (1785) Theorie der Gartenkunst, Band 5, Leipzig : 70
 18. Hoffjahn, T. (1981) Von der Schrebergartenbewegung zu den Kleingärten von heute, In : Andritzky, M./Spitzer, K. (Hrsg.), Grün in der Stadt, Hamburg : 52
 19. Hülbusch, K. H. (1981) Zur Ideologie der öffentlichen Grünplanung, In : Andritzky, M./Spitzer, K. (Hrsg.), Grün in der Stadt, Hamburg : 327
 20. Institut für Landes- und Stadtentwicklungsforsch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ILS) (Hrsg.) (1975) Entscheidungshilfen für die Freiraumplanung, Band I Materialband, Dortmund : 77
 21. Ipsen, G. (1956) Stadt, IV : Neuzeit, In : Erwin von Beckerath, Bente, H., u. a. (Hrsg.), Handwörterbuch der Sozialwissenschaften 9, Stuttgart, Tübingen, Göttingen : 786
 22. Kabel, E. (1949) Baufreiheit und Raumordnung, die Verflechtung von Baurecht und Bauentwicklung im deutschen Städtebau, Ravensburg : 158-160
 23. Krahl, W. (1976) Richtwerte für die Freiraumplanung, In : Mitteilungen der Abteilung Biometrie der Forstwissenschaftlichen Fakultät an der Albert-Ludwig-Universität zu Freiburg, Freiburg : 45-46
 24. Krysmanski, R. (1967) Bodenbezogenes Verhalten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Münster : 180, 184-185
 25. Krysmanski, R. (1971) Zur Nützlichkeit der Landschaft, Düsseldorf : 47
 26. Läsker-Bauer, U., u. a. (1985) Analyse von Planungs- und Entscheidungsprozessen der Freiraumplanung in Innenstädten, In :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s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Städtebauliche Forschung, Heft Nr. 03. 114, Bonn-Bad Godesberg : 19, 95, 97-98, 155
 27. Mackensen, R. (1974) Städte in der Statistik, In : Peht, W. (Hrsg.), Die Stadt in der BRD, Stuttgart : 141
 28. Minister für Landes- und Stadtentwickl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MLS) (1984) Freiraumbericht, In : MLS informiert, 1/84, Düsseldorf : 15
 29. Nehring, D. (1979) Geschichte des Stadtgrüns, Stadtparkanlagen in der ers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s, Band IV, Hannover, Berlin : 103-104
 30. Posener, J. (1964) Anfänge des Funktionalismus, Berlin, Frankfurt/M, Wien : 14
 31. Richter, G. (1981) Grundlagen und Verfahren, In : Richter, G. (Hrsg.), Handbuch Stadtgrün, München : 17-18, 122
 32. Siebert, A. (1975) Entwicklung einer Grünflächenordnung und Grünflächenpolitik

- für die moderne Stadt, In : Veröffentlichungen der Akademie fü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 Städtisches Grü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and 101, Hannover : 50
33. Spitthöver, M. (1982) Freiraumansprüche und Freiraumbedarf, Arbeiten zur sozialwissenschaftlich orientierten Freiraumplanung, Band 3, München : 29-30, 37, 95
34. Ulrich (1779) Bemerkungen eines Reisenden durch die königlich preußischen Staaten in Briefen, Altenburg
35. Wegener, G./Kühling, W. (1983) Kommunale Freiflächenplanung, In : Institut für Raumplanung (IRPUD) (Hrsg.), Umweltgrüteplanung, Dortmunder Beiträge zur Raumplanung, Band 29, Dortmund : 88
36. Wiegand, H. (o. J.) Geschichte des Stadtgrüns, Entwicklung des Stadtgrüns in Deutschland zwischen 1890 und 1925 am Beispiel der Arbeiten Fritz Enkes, Band II, Berlin, Hannover : 20-21, 23
37. Wiese von Ofen, I. (1984) Freiraum im Städtebau-neu gesehen Straße und Platz, Grünraum und Wasser, In : Deutsche Akademie für Städtebau und Landesplanung (Hrsg.), Mitteilungen, Band I : 7